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후 집회는 월례회로 모입니다. 찬양은 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교회 세우기의 시작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1시부터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11일)에 7월 연합속회가 열립니다.

예배인도 - 나사렛 속 식사당번 - 가버나움 속

개척자들의 평화캠프 참가자 파송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11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셔서 평화의 길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은 예배 때 복장을 다소 가볍게 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냉방을 덜 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일상이 분주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마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삶을 조율하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시간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
 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의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첫 시간에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들에 얼마나 성실한
 모습으로 임했는지 살피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뒤따르려 했지만 갈
 지자걸음을 걸어온 우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여미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곳곳에서 큰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소리
 들이 부딪히며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소란함 가운
 데 하늘 소리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큰 함성 가운데에서
 도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북녘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놓치
 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신음하고 계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박옥식 장영숙 조병무 송양진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구명자 김일량 이은옥 김신옥 김용길 최영혜 김중수 이순정
 박영희 방민 오진훈 노순옥 윤영원 이선희 임원민 임수연 임영
 정경례 정복순 오자영 맹은선 장성호 권미숙 김주경 허호범 장원호
 박성희

월정현금:

김영순 서정순 안길상 왕수명 윤성종 김윤정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장재영 김재영 이수정 배재경 이소순 김순자 이해동
 박찬정 최동운 박범희 박미영 이현순 류건형 이주은

감사현금:

김희우 송양진 김영한 이희균 정완수 김재광 전성오 무명4

녹색꿈현금:

한지혜 박병구 이영순 김중수 이순정 장재영 김재영 김남홍
 (누계: 890,000원)

	장혜숙	장혜숙	김정섭	연 합 속 회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문영혜	박경선	이명희	
	안정숙	박애순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백혜숙	정옥영	김희우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이영란	박미영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당신 얼굴

평온하고 온화한 당신 눈길에
 제 영혼 사로잡힙니다.
 주님, 무엇으로 당신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찬미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영혼에게 은총을 주시어
 끊임없는 사랑으로 불타게 하시고
 밤이든 낮이든
 쉴 줄 모르게 합니다.

오로지 당신 안에 휴식이 있고
 당신께 대한 기억이 제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당신을 구하건만 당신을 잃어버립니다.
 밤낮없이 그리오니
 당신 얼굴을 보여주소서.
 주님,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토스산의 실바노, 20세기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둠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빛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간혹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조차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하루하루 정성스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 길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월례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찬양 인도/장성호 선생	기도/하정석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관희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박시내 집사

7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박두석 곽혜자 장혜숙 이권화
	헌금위원	한상익 박애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분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애쓰다가 거둬 난관에 부딪혀서 체념상태에 주저앉았다가는, 문득 어린 시절의 한 경우를 회상하고 다시 분발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마침내 처음 뜻을 관철한 몇 가지 경험이 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만주땅에서 보냈다. 어느 날인가 엄동설한에 20리 길을 홀로 떠났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눈을 뜰 수가 없거니와 길이 온통 눈으로 덮여 버려서 막연히 방향을 정하고 가까스로 걷다가 그만 눈이 쌓인 웅덩이에 빠져서 몸의 반 이상이 눈 속에 파묻혔다. 아무리 헤어나 오려고 해도 오히려 눈 속에 점점 더 파묻혀 들어만 갔다. 그 후 오랫동안 손을 허우적대며 빠져나오려다가 결국 기진해서 마침내 살 것을 체념하고 그대로 눈 속에 몸을 내맡겼다. 체념하자마자, 내 마음은 가라앉고 노곤해서 잠이 들려고 했다. 그대로 평화롭게 얼어 죽어도 좋다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문 밖에 나오셔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를 불러 '어서 일어나 나오라!'는 어머니의 환상이 떠올랐고 그 순간 최후의 분발로써 그 눈구덩이를 헤치고 나와 결국 살게 된 일이 있는데, 그때의 회상은 체념 속에 주저앉아 버린 나를 소스라치게 했던 것이다.

스페인의 어떤 그리스도교 사원의 한 대리석 기둥에는 항상 촛불이 켜져 있고, 많은 관광객들의 합장(合掌)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런데 그 대리석 기둥에는 십자가 형태가 새겨져 있을 뿐이다. 이 대리석 기둥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다.

그 사원은 원래 아랍족속이 스페인을 지배할 때 세워진 마호메트 사원이었는데,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그곳을 침범했다가 체포되어 그 기둥에 걸박되어서 사형을 기다렸다. 그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최후의 분발로써 묶인 손의 손톱으로 계속 그 기둥에 십자가를 새겼다.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미 그의 열 손가락은 손톱이 있는데까지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고, 그는 실신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분발의 흔적을 저들은 두고두고 초를 켜서 밝히고 있다.

젊은 사람치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거나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체념하

거나 마지막 분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성패의 갈림길이 된다. 그래서 역사에 무수한 천재적 소질과 웅대한 꿈들이 빛을 못 본 채 사라졌는지 모른다.

분발이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사람을 평하는 데 그대로 들어 넘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인은 제주도 비상하고 출발도 보무당당한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호지부지하거나 아무렇게나 처리해 버린다는 것이다. 가령 예술 같은 것도 겉모양이나 그 착상이 참 좋은데 마무리에 가서 실패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좀 힘을 남긴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상도 기발한 착상과 웅대한 출발과 노력의 흔적이 뚜렷한데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채 어물어물 매듭을 짓고 만다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를 지키거나 또는 어떤 혁명적 개혁운동에 나섰을 때는 굉장한 패기를 보였는데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그만 체념하고 아무렇게나 되라고 내버렸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최후 5분간'이라는 슬로건을 잘 쓰며 독일 사람들은 '철저히'(grundlich)라는 것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민족이나 개인들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재주로나 머리로 볼 때 어느 민족에게 뒤진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도 세계를 놀라게 할 이렇다 할 것은 못 남기고 언제나 가냘픈 역사를 이어온 것은 바로 좌절상태에 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듯 모든 힘을 모아 분발할 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더 이상 모방해서는 그날 그날을 연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총동원해서 내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야만 한다. 그것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후의 순간에 '분발'하여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혼련이 절대로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칠전팔기(七顛八起)라는 말은 알고 있으나 실은 육기칠전(六起七顛)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분발'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표어라고 생각한다.(1974년 6월에 쓴 글)

--안병무, <<너는 가능성이다>> 중에서